

남원 청년 10명 중 4명은 무직

실업률 40% 넘어...실업자 3명 중 1명은 2년 넘게 무직상태 '결혼해야 한다' 26% 그쳐...가장 필요한 시설은 백화점·아웃렛

호남통계청 '청년경제실태조사'

남원시의 청년 실업률이 40%가 넘는 가운데 실업자 3명 가운데 1명은 2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은 26%에 그쳤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 인프라는 백화점과 아울렛으로 조사됐다.

호남지방통계청과 남원시는 남원지역 만 19~39세 청년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남원지역 청년의 취업자 비율은 58.1%, 미취업자 비율은 41.9%로 집계됐다.

취업자들의 재직 기간은 1년 미만인 29.1%였고 1~3년 미만 28.5%, 3~10년 미만 34.2%, 10년 이상 8.1%였다.

미취업 기간은 6개월 미만 20.5%, 6개월~1년 미만 23.5%, 1~2년 미만 22.6%, 2~3년 미만 10.6%, 3년 이상 22.9%로 2년 이상의 장기 실업자가 전체의 33.5%에 달했다.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44.5%였고 이어 공기업 28.9%, 개

인기업 8.4%였다.

결혼에 대해서는 26.4%만이 '해야 한다'였고 70.0%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답했다. 3.6%는 '하지 말아야 한다'였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출산과 육아 정책으로는 각각 '출산 휴가제 확대'(32.8%)와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확대(26.0%)를 꼽았다.

여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인프라로는 백화점·아울렛이 32.7%로 가장 높았고 문화센터 확대 19.3%, 공연관람시설 확충 18.5% 등이었다.

남원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중소도시 청년들의 현실과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라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가 성탄절을 앞두고 빵류 제조업체를 찾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위생지도 점검 현장.

고창군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심덕섭(왼쪽 세번째)군수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원광노인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수행기관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이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돼 지난 13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원광노인복지센터에서는 내년부터 3년간 관내 노인층 2400여명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층이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개인별 상황에 맞게 제공해 준다.

고창군에서는 지난 3년 동안에도 3개 수행기관에서 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수행하며 사회참여프로그램(영화·공연보기), 기관별 연계사업,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층의 만족도가 높았다.

앞으로도 수행인력 채용 후 체계적인 서비스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성탄절 앞 빵류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

정읍시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등 빵(제과)류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오는 21까지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케이크 등 빵류를 주로 제조해 판매하는 정읍지역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와 제과점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위반업소에 대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농촌유학' 도시 초·중생에 월 50만원

도교육청 20일까지 모집

"지역별 테마가 있는 농촌유학 신청하세요."

전북도교육청이 2023학년도 농촌유학에 참여할 도시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20일까지 모집한다.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면서 지역과 농촌을 알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도 교육청은 온라인을 통해 '전북 농촌유학 홍보 설명회'를 열고 전국에서 농촌유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전북 농촌유학 학생들은 1년간 22개 농산어촌 협력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시골 체험을 하게 된다.

농촌유학 유형은 가족제류형, 흡스테이형, 유학센터형로 운영된다.

가족제류형은 가족 또는 일부가 마을이나 지

자체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생활하는 형태며, 흡스테이형은 학생이 농가의 보살핌을 받는 방식이다.

유학센터형은 학생 여러 명이 유학센터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는 형태다.

농촌유학 참여 학생에게는 매일 유학 경비로 도 교육청이 30만원, 전북도가 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서울 학생 27명이 지난 10월부터 5개월간 도내 6개 협력학교에서 재학생과 협동학습, 생태학습, 교육활동을 함께하는 첫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전북 농촌유학은 저마다 빛깔을 가진 농촌지역 스토리를 교육과정에 담아 운영하는 특별한 형태"라며 "특색있는 테마식 농촌유학으로 학생 소질과 적성을 키우고 특기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역 광장, 지역 상권 활성화 중심으로"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정책 토론회...도시 미관·접근성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이 지난 14일 '정읍역 광장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읍역 광장은 2015년 KTX 정읍역사 완공 이후 광장 중앙을 관통하는 지하차도 개설로 인해 남측 광장과 북측 광장으로 이원화되면서 시민광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정읍역 입구에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와 대형전광판이 위치해 정읍역사 건물을 가

리는 등 도시미관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이견요구를 받아왔다.

윤준병 의원은 앞서 정읍역 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컨퍼런스 센터의 코레일 부지 매입 동의를 이끌어 냈고, 역전지구대 이전에 대한 경찰청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정읍역 관통 지하차도의 복개와 관련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간의 이견을 조율해 왔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그간 있었던 시

민들의 목소리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와 정읍시, 지역 상인회와 청년단체 등 지역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정읍역 광장이 정읍의 핵심 광장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박종근 전북과학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덕진 좋은도시 대표 '지하차도 복개 및 디자인 검토', 유승호 중앙상기병 영화상 '상기, 관광 활성화 방안', 이승호 정읍청년회 사무국장 '문화예술, 청소년 공간 조성', 최재용 정읍시 부시장 '정읍시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 비전' 등이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